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09월 0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8호

## 제 39주기 종조멸도(滅度)절 종령 법어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조님의 열반일을 맞이하여 마음깊이 추모(追慕)와 함께 성심을 다해 추선(追善)합니다. 원정대성사께서 열반하신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해가 갈수록 추모의 정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총지중을 창종하신 지 10년도 채 안된 시기에 열반에 드셨기에 더더욱 비통(悲痛)한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정통불교의 법맥이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大道)를 열어 급변하는 시대에 적실(適實)하고 참신(斬新)한 수행법을 제시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깊은 대비원력(大悲願力)에는 한량없는 존경심과 함께 추모의 정을 절감(切感)하게 됩니다. 금일,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멸도절을 당(當)하여 모든 종도들이 종조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 진언행자의 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시불공(時時佛供), 사사불공(事事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의 실천법으로써 생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하고,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며, 세간교락에 초연하는 자기의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부처님이 교시(敎示)한 법과 계율에 입각하여 생활하고,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화합과 단결을 실천하며, 개인의 이익 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현재정화에 퇴전 없는 정진으로 종단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훈시(訓示)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행과 정진, 일체중생의 제도는 승단과 교도 등 모든 종도들의 본분사(本分事)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 모두 마음깊이 되새기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每年) 종조 원정대성사를 추선하는 멸도절 불사를 올리는 뜻은 불퇴전의 정신으로 종단의 중흥을 이루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세워 모든 종도가 하나가 되어 매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수행 정진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진언연승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악업이 발돋움 하게 됩니다. 둘째는 비록 사소한 나쁜 습관이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리고 고치는 데서 속세의 업장을 없앨 수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配慮)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배려(配慮)는 가정과 종단, 사회를 밝히는 지름길이며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더불어 가지신력이 원만구족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음마니반메훤 음마니반메훤 음마니반메훤. 총기 48년 9월 8일 종령 법공 합창

## 밀교 중흥조 원정대성사 '일대기'로 우리 곁에 창종 50주년, 멸도 40주기 맞아 삶과 사상 첫 조명

종조 멸도절 제 39주기 추선불사가 총기 48년 9월 8일 봉행될 예정인 가운데, 밀교 중흥조 원정대성사의 삶과 사상을 담은 첫 일대기가 집필된다. 2021년 창종 50주년과 내년 멸도 40주기를 맞아 이 땅에 비밀불교를 다시 꽃피우게 하신 창종주를 다시 우리 곁에 모시고자 기획되었다. (대성사 행장 2면, 관련인터뷰 6면) 일대기는 말법시대 밀법으로 수행의 근본을 세운 원정대성사의 삶을 통해, 현대 한국 밀교 태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총지중의 종지와 수행법, 밀교의 가르침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여여갈 계획이다. 페이퍼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일반대중들이 읽기 쉽게 구성되어 대성사의 가르침이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집필된다. 또 대성사의 일화와 주변인 인터뷰를 중심으로 재미와 긴장도 함께 실어낼 계획이다. 일반신도 특히 젊은 계층에

밀교의 수행법과 가르침, 총지중의 위상과 지향점을 진솔하게 전하는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대기는 총지교도들의 마음을 모아 제작할 예정이다. 불교 전통에는 법회를 열 때 스님과 신도가 그 법회 비용을 마련하는 설판(設辦)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극한 정성을 모으는 의미다. 법회를 위해 불단을 장엄하고 차 공양을 올리는 등 작은 정성을 심시일반으로 완성하며 자신이 주인공으로 임하는 불가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을 접목해 원정대성사의 일대기를 출간하는 작업에 총지교도가 동참하여, 창종의 참 뜻을 되새기고, 대성사의 큰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기획중이다.

이번 일대기의 집필을 맡은 김천 작가는 "각 스승과 인연인물의 회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히 살아간

밀교수행자이자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종교적으로 구제하려한 선각자의 참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부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밝히며, "총지중 창종의 역사를 통해 총지중이 세상에 전하려하는 가르침과 종지(宗旨)를 전하고, 종조법설집의 편찬과 설법 인연, 당시 설법의 모습을 그려 대성사의 면면을 잘 살펴내고자 한다."며 집필 방향을 소개했다.

김천 작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공사 구성작가와 불교텔레비전 프로듀서, 경향신문 객원기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프로덕션 맥스웰 대표이자 자유기고가로 활동중이다. 상하이 국제영화제 최우수 각본상을 영화 '동승'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시대를 이끈 '창종자들'(도서출판 참글세상), 책 '태허조사 평전 인생탈출'(도서출판 범성) 등이 있다.



종조 원정대성사

## 학교법인 관음학사 186차 이사회 개최 동해중 신입 교장, 교감 임면의 건 원안 통과



학교법인 관음학사 186차 이사회(이사장: 인선정사)가 8월29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되었다. 학교법인 이사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강경중 이사, 정영문 사외이사 등 총 8명의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는 탁상달

교장 정년퇴직의 건(2019.8.31.), 송인근 교장 임면의 건(2019.9.1.), 김진화 교감 임면의 건(2019.9.1.) 건이 상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안건을 모두 원안 통과하고, 동해중학교 송인근 신입 교장, 김진화 신입 교감과 상견례를 마쳤다.

## 법성빌딩 분양가 공개, 가격, 품질 최적 부산역 도보 10분 거리, 남향대교 조망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주교:법선정사)가 입주하게 되는 법성빌딩(가칭)이 신축을 마친 가운데, 분양가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 금번 공개된 분양가는 아파트는 평당 1천만 원에서 총에 따라 1천200만 원까지이며, 오피스텔은 평당 1천만 원에서 역시 총에 따라 1천100만 원 선으로 확정되었다. 인근 지역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현재 B아파트의 경우 평당, 1천300만원, J 아파트는 1천500만 원, E 아파트의 경우 최저 1천150만 원에 달한다. 부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신축 건물로 프리미엄 옵션이 포함된 법성빌딩은 가격 면

에서나 퀄리티 면에서 분양에 최고의 조건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가 지난 2008년부터 부산역에서 옛 북항까지 이어지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역 인근 교통중심지의 지리적 강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후 법성빌딩의 가치는 매우 치솟을 전망이다. 법성빌딩은 아파트 24세대, 오피스텔 34호, 업무 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거 복합 건물이며, 총지중은 아파트 11세대, 오피스텔 18세대를 분양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9-1, 대지면적 690㎡ 건축면적 501㎡ 연면적 5893.6㎡에 주거복합건물로 재건되었다.

중/조/법/어

정통밀교 입교하여 믿고 행해 나가야만 그 가정을 보존하고 장원하게 이어간다

지면안내

4면 지혜의 눈 6면 원정대성사를 기억함 9면 역삼한담 10면 붓다와 문학

## 제39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일시 총기 48년 9월 8일 오후 2시

장소 총지사 원정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 02)552-1080~3 | www.chongji.or.kr

# 원정대성사, 1972년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창종 이 땅에 비밀불교를 다시 꽃피우다.



이 땅에 비밀불교를 다시 꽃피우게 하신 총지중(總指宗)의 종조(宗祖) 원정(苑淨) 대성사(大聖師)께서는 불기 2451년(단기 4240년, 서기 1907년) 1월 29일 유서 깊은 고장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청신남 손기현(孫基賢) 거사와 청신녀 이근호(李根浩) 여사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탄생하셨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이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타고난 성품이 영특, 총명하시고 불요불굴의 의지와 정의

감, 뛰어난 기지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큰 그릇으로 일컬어졌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한 사회개혁의 웅대한 꿈을 품으시고 밀교의 증흥에 힘쓰셨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정신적 공황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이 땅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정법(正法)으로서 일찍이 진각종의 회당(梅堂) 성사와 함께 종단의 재단법 인화와 편외보발에 의한 도심포교라는 선구적인 발상으로 현대 밀교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이후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사의 해박한 세출세간(世出世間)의 폭넓은 학식(學識)과 뛰어난 밀교수법(密敎修法)의 수행력에 의한 것이었다. 원정 대성사의 영도 하에 단시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불교총지중은 이후 한국밀교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했으며 밀교증흥의 횃불이 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정대성사께서는 밀법 흥포의 대원을 제자들에게 부촉하시며 총기 9년(1980년 9월 8일) 바로 이곳 총지사에서 74세를 일기로 이 세상의 인연을 다하시고 열반에 드시게 되었다.

기지로 내걸고 밀법에 의한 생활불교의 실천으로 불교 대중화에 힘쓰시다가 불기 2516년(단기 4305년, 서기 1972년) 12월 24일 드디어 불교총지중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원정대성사 행장	
1907. 01. 29	경북 밀양 출생
1953. 11. 02	대한불교 진각종 정사에 피임
1960. 04. 20	대한불교 진각종 인쇄(印舍) 부회장에 피선
1964. 03. 26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에 피선 대중사 승위
	대한불교 진각종 유지재단 이사장에 피임
1969. 04. 20	총인 재단이사장 의원 면
1971. 04. 26	대한불교 진각종 기로원장으로 추대
1972. 01	은문생활로 불경연구 및 수도생활
1972. 06. 28	기로원장을 사임
1972. 12. 24	불교총지중 창종
	불교총지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 09. 08	열반(涅槃)(세순 74세)

## 신임 사감원장에게 듣는다.

### “풍기와 기강 규찰, 포상 징계 여법하게”



신임 사감원장 법경 정사

제145회 임시 총의회에서 법경정사가 새 사감원장에 인준이 되었다. 법경 정사는 현 법천사 주교로 밀교연구소소장, 유지재단이사, 원의원, 서울경인교구장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금번 새롭게 시작되는 사감원장

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사감위원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A. 전문성과 공정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헌 중범에 따라 행하면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하면, 저나 사감위원들이 처음 소임을 맡았지만 무난하게 처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고 친소(親疏)를 떠나 소신껏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 공사 엄격히 구분, 친소 떠나 소신껏 이행 종헌과 중범, 교상과 사상 준수의 조력자로

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에 대해 직접 들어본다.

Q. 먼저 사감원장에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역량이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임감과 부담이 크지만 법을 준수하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해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우리 종단의 최고 감찰기관의 수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사감행정에 대한 포부를 말씀해주시지요.

A. 종헌과 중범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단 각 기관의 사무 및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풍기와 기강을 규찰하고, 포상과 징계의 사무를 여법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령 예하에서 지난 7월에 개최된 승단연찬회에서 교시하셨듯이 불사범요 등 종단의 교상과 사상에 대한 부분에 대

안에 대해서는 사감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Q. 동국대학교에서 '대일경 계율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율을 전공한 것이 직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A.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뜻은 승단이 바른 길로 가고 장원(長遠)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행이 바로고, 위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율은 수행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율의 준수 여부는 사감원 업무의 큰 잣대가 될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곧 종헌과 중범, 교상과 사상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단 구성원이 법과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하겠습니다.

<인터뷰=교정부장 승원정사>

### 바로 잡습니다

지난 8월호 1면 기사 본문 중 불멸심 지수 열반일을 7월 22일로 바로 잡습니다.

##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가

(단위: 원)

아파트				
층	세대수	평	평당금액	분양금액
4	1	27.1	11,000,000	298,100,000
	1	25.2		277,200,000
6	1	27.1	11,500,000	311,650,000
	1	25.2		289,800,000
8	1	27.1	11,500,000	311,650,000
	1	25.2		289,800,000
10	1	27.1	12,000,000	325,200,000
	1	25.2		302,400,000
12	1	27.1	12,000,000	325,200,000
	1	25.2		302,400,000
14	1	27.1	12,000,000	325,200,000
	1	27.1		325,200,000
총	11세대			

오피스텔				
층	세대수	평	평당금액	분양금액
4	1	21.1	10,000,000	211,000,000
	1	26.6		266,000,000
	1	22.2		222,000,000
6	1	21.1	10,500,000	221,550,000
	1	26.6		279,300,000
	1	22.2		233,100,000
8	1	21.1	10,500,000	221,550,000
	1	26.6		279,300,000
	1	22.2		233,100,000
10	1	21.1	11,000,000	232,100,000
	1	26.6		292,600,000
	1	22.2		244,200,000
12	1	21.1	11,000,000	232,100,000
	1	26.6		292,600,000
	1	22.2		244,200,000
14	1	21.1	11,000,000	232,100,000
	1	26.6		292,600,000
	1	22.2		244,200,000
총	18세대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중의 수행 총서!

#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경 대정사 지음 /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구입문의 | 02-552-1080~3






# 제12대 통리원장 해암 종사 49재 봉행

## 8월 26일, 경주 국광사, 전 교도 한마음으로 추선



지난 7월 10일 열반에 든 해암 종사(세수 85세, 법납 39년)의 49재가 지난 8월 27일 12시 경주 국광사(주교: 해안정 전수)에서 봉행되었다. 법회에는 중령 법공 예하를 비롯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전국 스승 및 교도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49재에서 유가족 대표로 아들 진성 씨는 추모사를 통해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안아드릴 수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도 실감나지도 않는데 벌써 49일째 되었습니다.”며, “이제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벼웁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로 아미타불 극락세계 연화대에 왕생하시어 부디 성불하시옵서소.” 서원했다. 1935년생인 해암 종사는 1981년 총지종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었다. 1998년 4월 출세간위 종사 품수를 받고, 2000년에는 제12대 통리원장, 총지종유지재단이사장,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TV이사, BBS이사를 역임하시며 평생 교화에 힘쓰셨다. 2003년 12월 기로원에 진원, 2019년 7월 10일 입적하셨다.

# 진각종, 울릉도 금강원 참배불사 봉행 통리원장 인선정사 초청, 종단 간 교류



진각종(통리원장 : 회성 정사)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을 참배하고, 회당문화축제의 성공적인 회향을 서원했다. 참배불사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총무부장 관명 정사, 부산교구청장 진광 정사, 포항교구청장 효명 정사를 비롯한 진각종 종단 스승들과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문화체육

관광부 정윤찬 사무관 등 내외빈과 신교도 등이 참석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제18회 회당문화축제를 앞두고 영원한 믿음의 고향인 금강원에서 몸과 입과 뜻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해서 종단 안팎으로 보이는 법문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서원한다.”고 했다.

# 불교TV, 한국시니어티브이 인수 8월 20일, 제92회 이사회서 승인



BTN불교TV 이사회가 방송채널 주식회사 한국시니어티브이 인수의 건 등을 승인했다. 지난 8월 20일 불교TV 사옥에서 개최된 제 92회 이사회는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회장 성우스님, 현고스님, 성문스님, 영배스님 등 이사 21

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방송채널 주식회사 한국시니어티브이 인수와 취업규칙 일부 개정의 건을 승인했다. 또 이사회 회장 성우스님은 내년 개국 25주년을 맞는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동해중학교 신입 교장, 교감 임명장 전달 신임 교장에 송인근, 교감에 김진화 선생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가 지난 8월 29일 동해중학교 교무실에서 전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교장 송인근(현 교감, 위) 선생과 신임 교감 김진화 선생(수학과목, 아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새 교장, 교감은 9월1일 자로 발령받았으며, 임기는 4년이다.

# 불교계 첫 재한이주민 연합조직 창립 8월 12일, 법보신문사서 추진위 출범



국내 거주 이주민수가 1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한 이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이주민법당 및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칭)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이하:다불연)가 창립한다. 다불연은 법보신문사와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이 11월 개최 예정인 ‘제1회 재한이주민불자연합법회’에서 공식 창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주민을 지원하는 불교단체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불교에 토대를 둔 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불연은 지난 8월 12일 서울 법보신문사 회의실에서 창립을 위한 1차 사전 준비모임을 진행하고 창립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창립추진위원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몽골, 줌메인(방글라데시) 등 8개 국가의 서울·경기지역 법당 및 공동체가 참여했으며, 위원장에는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스리랑카) 스님이 선출됐다. 심정섭 일일시호일 대표는 “지난 10년간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일방의 시혜적 개념을 넘어 부처님 제자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관계성 정립이 필요하다. 다불연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사진=법보신문>

# 법경 정사, 동국대 우수 강사로 선정 전체 716개 강좌 중 상위 20%

동국대학교에서 인문교양과목 ‘불교와 인간’을 강의중인 법경 정사가 우수 강좌 및 강사로 다시 선정되었다. 동국대학교 전체 716개 강좌 가운데 상위 20% 내에 들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이 강좌는 근본교설, 실천교설, 붓다의 생애, 삶은 고(苦)인가 락(樂)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의 실천, 불교의 생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3회

# 불교총지종 경로법회

일 시 | 총기48년 9월 25일(수)~26일(목)

장 소 | 청송 대명리조트

## 부모님 일 가지 은혜

아이를 배워서 지키고 보호 해준 은혜  
해산함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신 은혜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신 은혜  
쓴 건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여주신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누이신 은혜  
젓먹이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은혜  
목욕세탁 더러움 씻어주신 은혜  
멀리 떠나면 근심 걱정하신 은혜  
자식을 위해서 모진일 하신 은혜  
임종 때도 자식위해 근심하신 은혜

-부모은중경 중-

칼럼 지혜의 눈



###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 남의 흉을 보지 말라

(1) 남이 저지른 잘못된 일을 흉보는데 힘쓰지 말고 항상 자신을 반성하여 정과 부정을 알아야 한다.  
 (2)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먼저 참회한 다음, 뜻과 행동을 조심하여 선을 행하고 범함이 없다.  
 (법구경(法句經), 불교총전 476p)

부처님의 '본생담'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고행만으로 깨달음을 이룬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오랜 역겁의 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선행을 하고 수행을 거듭하여 공덕을 지은 결과로서 이 현재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으로서만 한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름 없는 풀벌레로도 살아봤을 것이며, 모든 생명을 관통해서 살아봤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헤아릴 수 없는 역겁의 시간을 보냈으며, 이런 윤회하는 삶의 행위가 모두 저장되는데 이를 불교에서 '제8식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제1식부터 7식 까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에 업이 씨앗처럼 자리 잡기 때문에, 한 생명이 다하면 그동안 느끼고 받아 들었던 모든 인식이 아뢰야식에 담겨 있다가 씨앗처럼 자라나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번도 다른 삶을 살지 않았었다면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뢰야식에 저장된 많은 생각과 습과 행동이 저장되어 있어서 현재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주는 것도 없이 미운사람이 있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에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느 생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여러 인연들을 만나면

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쓸 만한 생각보다 내다 버릴 생각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과 오지 않을 미래의 생각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생에서 태어나서 겪는 일들 중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되는 게 많습니다. 내 마음은 아름답고 싶은데 아름답게 태어나지 않았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

## 제8식 아뢰야식, 윤회하는 삶이 모두 저장 오로지 참회를 통해서 자기 허물을 벗어야

로 살지 못합니다. 지식도 내 맘 대로 따라 오지 않고, 잘 키워서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드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 보면 누구나 말 못할 사연, 해결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설화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매일 숲으로 가서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돌아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를 지고 나옵니다. 어느 날 반복되는 삶이 너무 고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무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바다에 나무를 내동댕이쳤습니다. 누워 하늘을 보며, 죽음의 신이 있다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소리를 질

렀습니다. 늙고 병들었는데 왜 안 데리고 갑니까, 남들은 잘도 데리고 가는데 왜 나는 안 데리고 갑니까, 제가 무슨 죄입니까, 그 때 죽음의 신이 '부르셨습니까?' 하며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지겨운, 괴로운, 생각이 모두 달아났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떨어트린 나무를 지는데 힘이 들어서, 도와 달라 불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결국 다시 나무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반복되는 것처럼 지치고 고

단해도 실제로는 죽음의 신이 나타나면 놀라는, 결국 죽는 것보다 살고 싶다는 것이 깊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한가지로 끝나면 되는데, 뒤따라서 슬픔을 조이듯이 계속 고통이 연이어서 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또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살아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 어려움, 고통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남이 저지른 잘못을 흉보는데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간에 오는 순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참회를 통해 자기 업을 소멸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습관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바뀝니다. 여러 겹 동안 자신에게 저장된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로지 참회를 통해서 자기 허물을 벗을 수 있습니다.

## 영화 '나랏말싸미'와 불교의 역할

### 신미대사 역할론, 학자들이 제시한 학설 영화 한편에 한국불교 현실 여실히 반영

최근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은 한국 현대사의 오래된 문제인 친일 청산 문제를 또다시 소환하였다.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영화 '나랏말싸미'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을 만들도록 하였다가 그것이 그동안의 학설이다. 여기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신미대사의 역할이 거론되면서 훈민정음을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느냐의 논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신미대사의 역할론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학설이었으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한 소설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이루어진 소설의 줄거리를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중의 하나가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문장중의 하나가 '용비어천가'와 불교 찬가인 '월인천강지곡'이었다는 사실이다. 15세기는 비록 조선 왕조가 세워졌지만, 성리학적 세계관은 지배층인 양반에서조차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여전히 불교가 사회 운영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던 시대였다.

'나랏말싸미'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반응을 넘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영화 관람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놀란다. 영화 내용에 대해 우리 사회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되고 있었다면 영화적으로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가 훈민정음 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이토록 비판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많이 소진되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민족적 자산이다.

불교는 그 세계관에 있어서 인드라 망(綱)과 같은 연기론(緣起論)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적대적 공존이 아니라 진정한 공존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구성 원리를 인드라 망이라는 그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물코마다 투명한 구슬이 달려있는데,

그 구슬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의 구슬이 움직이면 그물망을 통해 온 존재에 그 파장이 전달되고, 투명한 까닭에 모든 다른 구슬의 모습이 각각의 구슬에 비춰지고 그 비춰지는 양상은 거듭되는 것이다. 마치 거울 두 장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 무한히 상



대 거울을 비추듯이 말이다. 이러한 설명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나비 효과와 많이 닮아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배제해야 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의상존하는 세계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할 수밖에 없다.

영화 한 편을 통해 현재의 한국 불교가 처한 현실의 한 부분을 알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의 역할은 빼놓을 수가 없다. 어쩌면 한국 사회가 불교에 그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한국 불교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국 불교가 제대로 응답하는 것은 한국 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민족 나아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일 아닐까.

<칼럼리스트 김태원>

## 내 마음의 등불

### 잡보장경(雜寶藏經)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병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정각사 남해 정사님은 다음 주자로 정각사 명진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정각사 남해 정사 편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택) 13.5x17x3cm

₩ 40,000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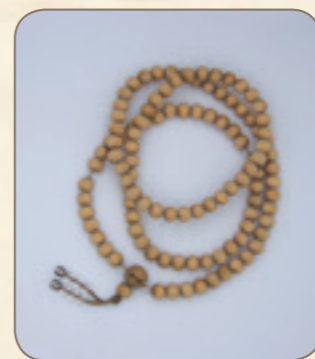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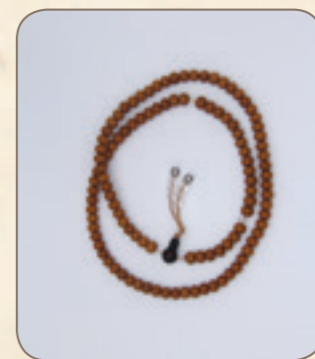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찐보리수 108염주

₩ 40,000



발교경전 읽기 27

원당정사

지난 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옴마니반메훬(Om mani padme hūṃ)'은 "옴, 연꽃속의 보주시여 (또는 연화상보살의 보주여)! 원인(생노병사 등의 고통)이 되는 업을 멸해주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은 우주(Om)에 충만한 지혜(ṃaṇ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되라.(hūṃ)"는 뜻으로 상징의미를 통해서

## 『대승장엄보왕경』을 마치며 ②

고통에서 벗어나고 명을 마칠 때에 12여래가 와서 영접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명부구제의 천도와 내세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삼마지를 얻어서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을 증득하게 하는 출세간적 성취를 이루게 하여 준다는 것을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하고 있다.

육자대명다라니는 현재 한국 밀교종단인 총지종과 진각종에서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옴 마니 반메 훬(Oṃ maṇi padme hūṃ)'의 육자대

미묘진언으로서 관음보살의 본마음으로 관음보살과 하나인 것이다. 육자대명다라니가 관음보살이고 관음보살이 곧 육자대명다라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칭명하여 해탈을 성취하도록 하는 대승경전의 관음신앙이 밀교의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밀교의 관음신앙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음신앙은 고통에서 해매이는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줄기 빛이며 가장 보편적인 신앙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관음보살이 곧 육자대명다라니라함으로서 관음의 위신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밀관행의 구밀로써 수행의 방법으로 삼아 본심을 깨쳐 즉신성불함을 있는 기도와 수행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끝>

## 육자대명다라니, 수행 대상 본존으로 삼아

이해할 수 있다.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으로 관자재보살의 대위신력과 대비원력으로 중생들을 고난과 액난에서 구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해탈하도록 하는 세간적 이익의 성취를 얻을 수 있으며, 육도에 윤회하는

명다라니를 수행의 대상인 본존으로 삼아 삼밀관행을 통하여 지송함으로써 현재정화와 본존과 내가 하나임을 체득하는 자내증으로 즉신성불함을 구경으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세음보살본심



연명이로 18

법상정사

의학적 측면에서 다루는 죽음은 주로 신체적인 죽음에 해당되며, 신체적 죽음은 다시 임상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상적 죽음은 호흡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이고, 뇌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불가역적인 경우가 아니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소생을 주도하고 치료가 적절히 수행되면 정상적인 뇌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생물학적 죽음은 소생술을 하지 않거나, 소생술의 효과가 없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뇌의 신경과 모든 조직이 괴사되는 과정이다. 순환이 되지 않고 약 1시간 후면 심장, 신장, 폐 등이 괴사되기 시작하며 약 2시간 후면 간이 괴사되기 시작한다. 피부는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면 괴사되기 시작한다. 즉 생물학적 죽음은 신체의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세포 전체가 생명 현상의 정지에 이르는 점진적인 이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인 죽음의 판정 기준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중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호흡 정지, 심장박동의 정지, 피부색의 변화, 근육의 이완과 경직이 죽음 판정의 지침이 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비록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도 인공호흡보조기 등의 도움으로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의

## 죽음이란 무엇인가② -의학적 측면의 죽음

활력 증상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의학적인 죽음을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법적인 문제까지 파급되었다.

죽음 혹은 사망(死亡)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계에서 생명체들은 다른 생명체에게 잡아먹히거나, 병에 걸리거나, 대량으로 멸종당하거나 혹은 사고나 노화 등으로 죽음을

직적으로 심폐사를 개체의 사망시점으로 한다.

심장, 뇌, 폐의 세 장기는 어느 것이나 생명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에 어느 하나라도 죽게 되면 곧 다른 둘도 기능이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기능이 정지하면 곧 개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므로 이 세 가운데 하나의 장기라도 죽는 것을 장기사라고 한다.

다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뇌가 죽는 경우에도

## 임상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으로 구분

맞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거나(살해), 스스로 죽거나(자살), 혹은 법에 의해 정해진 형벌(사형)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은 노화로 인한 질병이다.

예전에는 심장의 정지와 함께 일어나는 호흡, 안구 운동 등 여러 가지 생명활동의 정지가 죽음의 특징으로 여겨져 왔으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의 구체적인 생물학적 정의를 내리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죽음의 정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생명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뇌, 폐의 세 장기이다. 이 세 장기를 '3대 생명유지장기'라고 하며, 모두 죽는 것을 심폐사라고 한다. 법의학과 민법에서는 원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뇌사상태라고 한다.(덧붙이자면,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은 다른 상태이다. 식물인간은 뇌사와는 달리 뇌의 일부가 살아있어 영양분 공급된다면 자력으로 계속 살 수 있고 회복하나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뇌사는 비가역적으로 뇌세포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심장, 뇌, 폐가 죽어서 개체가 죽을지라도 신체 각부의 세포들이 동시에 죽는 것은 아니다. 심폐사 이후에도 신체 각부의 세포들은 어느 정도 살아서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죽게 된다. 여기서 모든 세포가 다 죽는 때를 세포사라고 하며, 심폐사와 세포사 사이의 시간을 생사중간기라고 한다. 그리고 생사중간기에 세포들이 하는 '자기 할 일'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를 초생반응이라 한다. <계속>



도현 정사

## 역할의 힘

캘리포니아에 사는 대학생 토미는 어느 일요일 아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멈춘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이송되어졌으며, 몇 분 후 중범죄로 기소되고 목비권과 변호사 선임 등의 기본권을 알려주고 몸을 수색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인적사항을 적게 한 후에 지문을 찍게 하였다. 그리고 눈을 가린 상태로 스탠퍼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온 몸을 벗은 채로 소독을 하고 가슴과 등에 수인 번호가 있는 죄수복으로 갈아입었다. 토미의 옷에는 647번이 붙어 있었다. 같은 날 잡혀온 8명의 대학생들도 연행되었고 수인번호가 찍힌 죄수복을 받았다. 토미와 함께 감방에 있는

죄수의 역할을 맡았던 참가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대학생들이었지만 죄수 역할이 배정되자 곧 이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운명에 병리적이고 수동적으로 따르기 시작 하였다. 집단으로 수감된 후 36시간 이내에 폭동의 주모자 중의 한명인 8412번 지원자는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율기 시작하였다. 그는 분노로 발작을 하였고 사고 혼란과 심한 우울증상을 보였다. 날이 지날수록 지원자 죄수 3명이 비슷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다. 다섯 번째 죄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가석방을 기각하자 운명에 정신장애로 인한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켰다.

## 사회심리학 고전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역할 부여 돼

죄수들은 모두 신문의 광고를 보고 2주간 교도소 체험 실험에 참가하기로 동의한 지원자들이다. 동전을 던져 일부는 죄수 역할을 맡고 나머지는 교도관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여러 명의 대학생 지원자의 집단에서 선발되었으며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검사와 면접을 하였고 평소와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였으며 비슷한 연령이었다. 죄수들은 종일 교도소에 갇혀 있었고, 교도관들은 8시간 교대로 근무하였다.

평소에 평화주의자였고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공격적이 되었고 때로는 가학적 행동까지도 하였다. 교도관들은 죄수들에게 모든 규칙에 대해 반문하지 않고 즉각 복종 하라고 하였고,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죄수의 특권을 사정없이 박탈하였다. 처음에는 읽고 쓰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정도의 특권들을 박탈하였지만 나중에는 사소한 반항에 조차 식사, 수면, 세면 등의 권한까지 박탈하였다. 규칙을 어기면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하기, 교도관의 발을 등에 올린 채 팔굽혀펴기, 독방에 가두기 등 무지막지한 벌을 가하였다. 교도관들은 죄수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도록 항상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였다.

스탠퍼드 교도소의 실험의 중요한 시사점은 교도관 역할 또는 죄수 역할이 무작위로 결정된 우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감옥 상황에서 정당화 되는 다른 권력과 지위를 만들어 냈다. 아무도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역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참가 학생들은 이미 다른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그런 권력의 차이를 경험 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선생과 학생, 의사와 환자, 상사와 하급자, 남성과 여성 같이 상하 서열관계 같은.

그들은 그런 특정한 환경에서 이전의 행동 패턴을 정교하게 하고 강화 하였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많은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쉽사리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에 놀랐다고 보고했다. 단지 제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수동적 대학생을 공격적인 교도관으로 바꾸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고, 개인은 그 이전의 자신의 역할과 전혀 다른 역할에도 순응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 그때 그 시절

### 개천사 헌공불사

총기 21년(1992년) 9월 22일(화)

장소: 대구 개천사 서원당  
건축설계/감리: 보성건축사무소

총기 19년 2월 16일 기공하고 동년 5월 21일 준공한 대구 개천사 헌공불사를 전국스승 및 대구 경북교구 교도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헌공불사를 봉행하였다.

### 만보사 헌공불사

총기 21년(1992년) 9월 29일(화)

장소: 대전 만보사 서원당  
건축설계/감리: 보성건축사무소  
건축시공자: 광산건설주식회사

총기 18년도에 준공한 대전 만보사 헌공불사를 전 승단 및 인근 지역 교도 약 1,200여명이 동참하여 성대한 헌공불사를 봉행하다.

### 대전 엑스포 불교관 개관

총기 22년(1993년) 9월 26일(일) ~ 10월 1일(금)

"새로운 도약의 길"이란 주제로 대전 세계 박람회내 불교관을 개관하여 방문하는 내외 귀빈들에게 불서보급과 함께 포교활동을 각 종단별로 특색을 살려 활발히 진행함.

참석: 범황사, 만보사, 흥국사, 혜정사, 성화사 청년부 20명.

### 불교문화대제전

장소: 서울 여의도 광장

총기 총지종관 전시:  
총기 25년(1996년) 9월 5일(목) ~ 14일(토)

총지종의 날: 25년(1996년) 9월 11일(수)  
전국스승, 경인지구, 부산 경남 400명, 충청 전라 120명, 합창단(서울 50명, 부산 50명, 대전 130명), 군악대

### 제5차 국난국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총기 27년(1998년) 9월 22일(화)

장소: 부산 정각사

전국스승 및 교도와 외부인사 등 약 2500여명 참석. 전 대통령 전두환, 장세동, 국회의원, 종단협의회 회장, 불교계스님, 정관계 국회의원, 구의원 등. 행사 진행 상황을 btn(해설 방송), BBS(해설 지성), 생방송으로 중계함

### 51사단 군 포교

총기 28년(1999년) 9월 13일(일)

컴퓨터 1,008,000원 T V 570,000원  
모니터 216,000원 V C R 250,000원  
프린터 221,000원 세탁기 540,000원  
가스렌지 65,000원

외 불교총선 370권 불사법요집 200권  
종조법설집 450권 장주 및 단주 100개 회사

### 백령도 종단 지도자 시찰

총기 29년(2000년) 9월 25일(월) ~ 26일(화) 1박2일

통리원장 총지화, 인선정사 참석

## 불교총지종 종무원 채용 공고

모집분야	총무부 0명 재무부 0명 재단사무국 0명
근무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주 5일, 09:00-18:00
급여	사내 규정 (4대보험, 근로기준법에 준함)
지원자격	학력, 성별 무관 연령 26세~40세
우대사항	1종보통운전면허, 문서작성 우수자 (운전가능자는 남성에 한함)
근무지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역삼역 800m 이내)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2-552-1080~3
전형절차	서류전형 후 1, 2차 면접
접수기간	2019년 9월 1일 (목) 08시 ~ 2019년 9월 30일 (월) 24시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지성정사, 김동운 각자 인터뷰, 종조 원정대성사를 기억함

# ‘불공부터 하라.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부처님 법문으로 보이니까’

##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면 반드시 유한, 법계가 사람을 칭찬하면 무한’ 명문가 선비다운 기품, 종단 대소사도 불공 후에 결과를 보고서 판단



종조 원정 대성사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덕행을 기억함은 뒤따르는 이들의 거울이 되고, 가르침을 잊지 않을 때 고해를 건너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총지중보를 세워 일컫어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몸소 보이신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과 지극한 덕행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들

이 있고, 마음속엔 생사의 모습 그대로 살아계시다.

대성사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고 강조하는 김동운 각자님은 대성사님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 “참 근엄하신 분입니다. 허투루 웃거나 농담을 입에 담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 분 앞에서면 자연히 똘가집을 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표현이 없어서 말 한마디를 가벼이 하지 않았고 궁극한 일이 있어 질문을 할 때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억한다.

그런 성품에 대해 대성사님을 따르고 직접 가르침을 들었던 지성 정사님은 아마도 태생부터 선비와 같은 기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변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집안 대대로 유복했고 명문가 선비다운 기품이 있었습니다. 종암동 실지사에 계실 때를 돌아보면 늘 한복을 정갈하게 갖추 입으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때도 의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바깥바

람을 싫어해서서 일 없이 문을 열고 드나드는 일을 삼가셨는데, 어쩌다 찾아뵙고 멀찍이 앉아있으면 ‘그리 있으면 불편하니 나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밴 성품이 상대의 입장을 살피고 배려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성사께서 총지중 스승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법을 정한 내용도 살펴보면 옛 선비의 덕목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교수행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언행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뜻을 그대로 답았을 것입니다.”고 돌아보았다. 자신 뿐 아니라 곁에 두는 이들도 그 행실을 살펴보고 말과 뜻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도록 강조하셨다는 것이다.

김동운 각자님은 대성사님께서 늘 불공을 강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회고했다. “어떤 일을 물어 질문 드리면 곧바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셨고 한참 생각하신 후에야 답하셨습니다. 큰일을 결정해야 할 때 늘 한결같이 ‘불공부터 하라.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부처님 법문으로 보이니까’ 반드시 그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병

또한 불공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도 종단 대소사를 결정해야 할 때 불공 후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셨습니다.”고 전한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후호도 그릇되게 말하거나 행하시는 바가 없다”는 것이 각자님의 기억이다. 지성 정사님 또한 “부처님 대답만이 원만한 것이니, 매사에 불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라고 기억한다.

지성 정사님은 대성사께서 창종을 선포하시고 실지사에서 경전을 번역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회

상했다. “실지사는 24평짜리 3층 건물 이었는데 방 하나가 한두 평 남짓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경전을 번역할 때면 작은 책상을 놓고 꽃꽂이 앉아 경을 보고 글을 옮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한 줄이 남았더라도 바로 그치고 책을 덮어 다음에 정해진 일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치밀하고 철저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치밀함이 몸에 배어 매사가 시계마늘 같았다고 기억한다.

‘요즘 하는 일이 어떠냐?’고 물을 때 ‘힘들다’고 답하면 혼이 났습니다. ‘말이 행동을 따르는 법이니 힘들어도 잘되리라 믿고 그렇게 마음먹어 감사할 줄 알고 매사 지극하게 정성껏 행하는 것이 법계가 사람을 돕는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 지성 정사님은 기억한다.

스스로에게 엄밀했던 자세는 대성사님의 법문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동운 각자님은 “제가 가장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가르침은 ‘계행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또 불공을 정할 때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실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불공하다보면 반드시 고개가 닳쳐오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불공이든 4분의 3쯤 지나가면 고비가 있고 그걸 이겨내야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대성사님은 성품상 남을 칭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 또한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면 반드시 유한하지만, 법계가 사람을 칭찬하면 무한하다는 것이 대성사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남을 칭찬하면 그 공

덕을 쉽게 깎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하는 일이 어떠냐?’고 물을 때 ‘힘들다’고 답하면 혼이 났습니다. 말이 행동을 따르는 법이니 힘들어도 잘되리라 믿고 그렇게 마음먹어 감사할 줄 알고 매사 지극하게 정성껏 행하는 것이 법계가 사람을 돕는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 지성 정사님은 기억한다. 결국 생활의 불교화와 불교의 생활화는 평소 마음씀과 말과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이니, 불공 따로 언행 따로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성사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김동운 각자님이나 지성 정사님 모두 “불공을 가르쳐주시면 어김없이 점검하셨습니다. 시킨 대로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사에 점검하지 않고 넘기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한 번 들으시면 잊지 않고 꼭 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라고 공통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각자님은 “대성사님은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이니 힘든 일을 겪을 때면, 이런 인을 지었다고 마음에 새겨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그 절절한 가르침은 아직도 자신의 삶을 버티는 기둥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 덕에 세상의 희로애락과 풍파를 견뎌 지나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불모지에 첫발을 내딛은 이가 있었기에 그 걸음을 따라 같이 생긴다. 대성사님이 문을 열어 만든 길을 따라 불법이 생활 속에 담기고 생활이 불법과 다르지 않는 수행의 길이 세상으로 통하게 되었다. 육신의 무상함을 멸도로서 보여주셨지만, 기억하는 이들은 아쉬움 속에서 그 가르침을 지켜갈



지성 정사 (기로스승)



김동운 각자 (관성사 교도)

것이다. 사바의 풍파가 마음을 흔들 때 그 기억의 한 조각은 길을 밝히고 수행을 이끄는 별빛이 될 수도 있으리라.

<인터뷰=김천 작가>



## 정각사 문화강좌 (수시모집)

### 가을학기 개강

#### ▶합창단◀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단장 : 이상록  
지휘자 : 박윤규 / 반주자 : 김옥희

#### ▶한국화(천아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안정은  
회비 : 5만원

#### ▶스포츠댄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사 : 소달복  
회비 : 무료

#### ▶다도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강사 : 김정애  
회비 : 무료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시설로 19-9(명륜동 8-8) / 전화 : 051-552-7901

## 수인사 문화강좌

### 가을학기 개강

#### ▶민화강좌◀

9월 23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사 : 이명희 작가(영남이공대 민화지도자과정 수료)  
수강료 : 3만원(민화재료 본인부담)

#### ▶사찰요리강좌◀

9월 27일 금요일 개강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강사 : 박금화(영남대 외식가공학과 석사수료)  
수강료 : 무료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67(덕산동 120-1) / 전화 : 054-247-7613

부처님의 십대제자5  
지혜제일 사리푸트라(3)

# 諸法從緣生, 거짓 없는 법구(法句)를 이제야 깨달았네.

화령 정사(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감각이 청정하고 피부가 빛나는가? 혹시 불사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고 사리푸트라에게 까닭을 물었다. 사리푸트라가 왓사지 비구가 계승으로 읊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동안 가슴속에 답답하게 숙제로 남아있던 의문들이 씻은 듯이 풀렸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밝았던 것이다.

사리푸트라 존자는 왓사지 비구의 의젓한 품행을 보고 진짜 바라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사리푸트라는 왓사지가 탁발을 마치고 조용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인사를 하고 물었다.  
“벗이여, 당신의 감각은 청정하며 피부는 빛이 납니다. 벗이여, 당신은 누구에게 출가했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왓사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석가쪽으로 부터 출가하신 위대한 사문이 계십니다. 그 분은 세존으로서 나는 그분을 따라 출가했으며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리푸트라는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설하시냐고 물었더니 왓사지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간략하게 몇 마디만 전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왓사지는 사리푸트라에게 계승을 하나 읊어 주었다.

諸法從緣生 모든 것은 원인으로부터 생긴다.  
如來說是因 여래는 그 원인을 설하셨다.  
是法從緣滅 그리고 그 소멸에 대해서도 설하셨다.  
是大沙門說 위대한 사문은 그렇게 설하셨다.

이것을 듣고 지혜로운 사리푸트라는 금방 진리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뛰어난 지혜를 갖춰, 어릴 때부터 종교와 철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참 스승과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던 사리푸트라라는 이 한 구절만을 듣고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

다.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 ‘지혜제일’이라고 불렸을 만큼 두뇌 또한 명석했기 때문에 이 짧은 계승을 듣고도 부처님 가르침의 요점이 연기설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아무한테도 여태껏 듣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설한 부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사리푸트라는 이 계승 하나만으로도 청정한 법안을 얻었다고 한. 그래서 사리푸트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승을 읊었다.

## 250명 제자와 부처님 계신 죽림정사로 출가 14일 만에 깨닫고 아라한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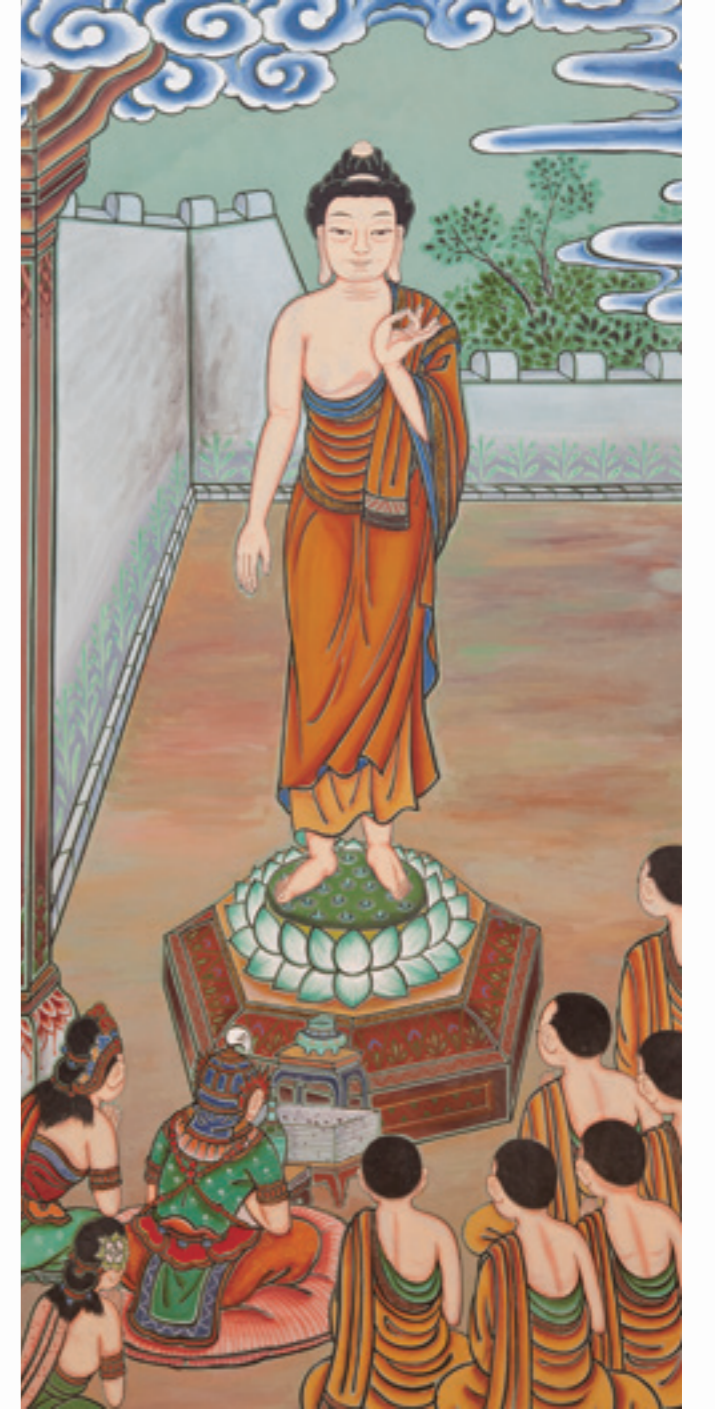
비록 이것뿐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바른 법이다.  
수만 겁을 헤매어도 듣지 못했던 거짓 없는 이 법구(法句)를 이제야 깨달았네.

이렇게 연기설에 대한 계승 하나만으로도 지혜의 눈이 열렸던 사리푸트라는 기뻐서 이 소식을 알린 목갈라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모양이다. 누구든지 먼저 참된 스승을 만나거나 진리를 들으면 알려주기로 했던 약속 때문이었다. 신이 나서 달려오는 사리푸트라를 본 목갈라나가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감각이 청정하고 피부가 빛나는가? 혹시 불사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고 사리푸트라에게 까닭을 물었다. 사리푸트라가 왓사지 비구가 계승으로 읊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동안 가슴속에 답답하게 숙제로 남아있던 의문들이 씻은 듯이 풀렸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밝았던 것이다.

던 것이다. 그것을 본 목갈라나가 혹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사리푸트라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은 목갈라나도 그 자리에서 청정한 법안을 얻었다고 한다.  
목갈라나도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신통제일’로 불렸던 만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리푸트라의 설명을 듣고 이러한 연기설을 설하신 부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부처님께 가서 이 분을 스승으로 섬기자고 사리푸트라에게 말했다. 그렇

만 산자야의 2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지도를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위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고 자기들은 석가모니부처님께 가서 가르침을 받을 테니 그대들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들도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이 계시다면 자기들도 꼭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는 평소에도 덕망이 있었고 또 지혜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도 이 둘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 같다.

그래서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는 산자야에게 가서 대중들의 그러한 뜻을 전하고 우리들은 부처님의 곁에 가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말한다. 산자야는 “안 된다. 가지마라. 우리 셋이서 이 무리를 이끌도록 하자.”고 하면서 만류했다. 경전에서는 세 번이나 밀고 당기고 하다가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는 마



침내 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자야를 떠나 부처님이 계신 죽림정사로 갔다. 산자야는 분해서 그 자리에서 괴를 토했다고 한다. 산자야의 입장에서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 같은 뛰어난 수제자와 25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부처님께 물려갔던 것이 분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회하고 궤변으로 일관하던 한 사상가의 종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카샤와 삼형제의 경우에는 얼른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귀의했지만 산자야는 진리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당신의 가장 뛰어난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내 이미 법을 잘 설해 놓았다. 내게로 와서 거룩한 수행을 하고 괴로움을 멸하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 그리고 같이 온 250명의 비구들은 모두 부처님께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았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어디 어디에 계시실 때 1,250인의 비구와 함께 계셨다’는 대

목이 자주 나오는데, 그 1250인이라 카샤와 3형제가 데리고 온 1,000명의 제자와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데리고 온 250명의 제자를 합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의 근기를 알아보시고 특별히 잘 가르치셨던 모양이다. 목갈라나는 출가 후 7일 만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고, 사리푸트라는 다시 7일이 더 지나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 수인사 교도



수제마카롱

# 구름위에 둥둥

blog.naver.com/jeju\_gurm.macaron

instagram.com/jeju.gurm.macaron

“구름위에둥둥” 예약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31)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⑥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중생이 지니고 있는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대일경』에서는 이를 60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심(女心), 자재심(自在心), 상인심(商人心)이 있다. 여심(女心)은 여인의 마음으로서 애욕에 빠진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자재심(自在心)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상인심(商人心)은 재산을 열심히 모은 뒤에 쓰임새를 생각하는 것처럼 실천은 없고 계산만 하고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여심(女心)

여심을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여심이라고 하는가? 애욕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애욕은 이성에 대한 탐착이다. 애욕(愛慾)과 성욕(性慾)에 집착하는 것을 여자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다. 여자를 애욕의 대상이자 주범으로 여긴 탓으로 보인다. 애욕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고 손치더라도 그 비유는 잘못되었

다. 어찌 애욕과 성욕을 여자의 마음에 비유한다는 말인가. 여자를 부정(不貞)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계속하여 여심에 대해 『대일경소』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여인은 욕심이 많은 것이 남자의 백배다. 언제나 좋아하는 것만 변함없이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용모나 자태 등만 생각하며, 수행자로 하여금 청정한 마음을 장애하며 가리게 한다. 역시 오랜 생애 동안 일찍이 여인이 되었기에 아직 본래의 습이 남아 있는 것이다.』

여인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본질은 애욕과 성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시비로 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심을 없애는 길은 바로 부정관(不淨觀)과 사념처(四念處)라고 한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부정관(不淨觀)과 사념처(四念處) 등으

로 실상을 관하면 이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성욕과 애욕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초기불교에서 설해진 오정심관(五停心觀) 가운데 하나인 부정관(不

부정관(不淨觀), 사념처(四念處)로 실상을 관(觀) 자재심 다스리는 길, 부처님 인연법을 자각해야

淨觀)을 행하는 것이다. 오정심관은 불선(不善)하고 불건강(不健康)한 마음상태를 제거하는 다섯 가지 수행법인데, 그 가운데 부정관(不淨觀)은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이나 신체의 더러움을 관찰하여 몸에 대한 감각적 욕망 등을 끊는 수행법을 말한다.

자재심(自在心)

자재심은 자기 멋대로 하는 마음이다. 『대일경소』에서 자재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자재심이라 하는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그러므로 자재심(自在心)은 진심(眞心)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자재(自在)란 인도 브라만교의 천신(天神)을 말하는데 불교에 수용되면서 대천세계(大千世界)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경지를 나타내며 만물 창조(創造)의 신으로 변용되었다. 그 모습은 눈이 셋, 팔이 여덟 개로, 흰 소를 타고 흰 지팡이를 들고 있다. 삼계(三界) 가운데 물질세계인 색계(色界)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신으로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다. 그러나 이 자재심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부정적 의미로 쓰여 자기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일경소』의 내용을 살펴보자.

『자재란 외도(外道)들이 섬기는 천신이다. 그 중(宗)에서 자재전은 생각하는 대

로 모든 중생과 괴롭거나 즐거운 일을 만든다고 한다. 이 법을 구하는 자도 언제나 생각을 이어서 그 본존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만약 진언을 행하는 사람이 자주 이와 같은 실지(悉地)를 얻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지재의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선세(先世)의 습(習)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마음에서 괴롭고 즐거운 일을 만든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 고집을 부려서 자기 마음에 집착한다면, 그것이 곧 고(苦)이다. 그래서 고(苦)를 벗어나는 길은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 『대일경소』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모든 법은 모두 다 인연에 속하며 자재는 없다고 관하면, 이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오고 감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상(無常)이오 무자성(無自性)이며, 일체가 공(空)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법을 깨달으면 자재가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자재심을 다스리는 길은 부처님의 진리를 자각하는

데 있다.

상인심(商人心)

상인심은 장사하는 상인(商人)의 마음이다.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장사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이해타산으로 대하는 것이다. 부정적 의미의 마음이다. 상인심을 『대일경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무엇을 상인심이라 하는가? 처음에는 거두어 모으고, 뒤에 계산하고 나누는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재화(財貨)를 일단 끌어 모아놓고 그 다음에 쓰일 곳을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대하는 마음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세상의 상인은 먼저 힘써서 화물(貨物)을 쌓아 모은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 물건이라면 이곳에 사용하기 적당하며, 저 물건이라면 저곳에 사용하기 적당하여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상인심이라고 한다.'

정성준의 후기밀교 자유기교가 정성준



와즈라바이라와



야만따까판뜨라를 비롯해 후기밀교에 등장하는 분노존을 이해하려면 와즈라바이라와(Vajrabhairava, 'jigs-byed)의 전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쫓카빠도 비밀집회판뜨라와 차크라상와라판뜨라와 함께 와즈라바이라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후기밀교시대에 변성한 무상유가판뜨라는 붓다가 되어 중생을 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기

차제와 구경차제의 양 차제는 이타적 불신의 현현과 성불을 위한 성취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신구의의업을 전환하여 붓다의 신구의의를 완성하는 조심스런 과정이 야만따까판뜨라의 성취법에 등장한다.

와즈라바이라와는 무시무시한 분노존이며 욕망에 대한 공성의 자각을 통해 살육과 증음,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친 증음의 환경을 대한다. 와즈라바이라와의 영역은 사유의 범주로 확장된다. 생유, 본유, 사유로부터 증음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는 사후 증음의 특별한 단계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공성의 무기는 공성과 실재에 대한 것으로 공성의 이차적인 접근은 절대광명으로 전환된다. 익숙한 열반법신의 절대성은 유정을 구하기 위한 불신의 성취를 완성하는데 미세유가에서 보이는 의식과 풍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통해 확장된다. 사유의 영역은 특별한 스승, 혹은 인도자가 필요하다.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증음, 법신의 단계를 이룰 본존이 필요한 것이다. 관정은 제자와 아사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형식적인 의례 즙음으로 생각되지만 야만따까 본존이 이끄는 사유의 정복은 중요하다.

무상유가판뜨라의 본존관정은 생소함에 대한 거부감으로 초보자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불교수행을 실제 해보면 인간해체의 공포와 저급할지 모르는 욕망의 승화는 반드시 넘어야 할 필연적 과정이다. 때문에

야만따까판뜨라 본존은 와즈라바이라와 외에도 크리슈나야마리, 락파야마리와 같은 분노존의 변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수행자가 대상으로 하는 번뇌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야만따까판뜨라의 관정에 동원되는 만다라는 별존만다라와 13존, 또는 49존 만다라로 이루어져 있다. 야만따까

후기밀교 분노존, 와즈라바이라와 금강승의 수호존, 공포의 지배자

본존은 겐룩빠의 전통에서 9개의 머리와 34개의 팔, 16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상의 과정을 통해 6개의 머리, 6팔, 6다리로 이루어진 관상의 과정도 존재한다. 또한 야만따까판뜨라의 본존은 검거나 붉은 신색을 나타내는 야마리의 성격에 따라 다른 변신을 나타내며 전승에 따라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야만따까판뜨라도 본래는 금강정경과 같

이 십만품의 광본이 존재했다고 전해지며, 근본판뜨라와 석판뜨라가 존재한다. 무수한 진언과 성취법, 관상과례로 채워져 있으며, 석판뜨라에는 관상과정에 나타난 구체적 관상내용을 설명한다. 인도의 야만따까 전통은 나란다대학의 아사리인 리리따와즈라에 의해 인도 우디아나로부터 티베트에 전해졌다. 야만따까의 전승은 초기불교의 그것과 비교해 많이 다르지만 잘 알려진 대로 생유와 증유, 사유를 오가는 범상치 않은 수행이다. 10세기 전후에 우디아나에 전승된 후기밀교는 초기불교에 제시된 불교수행을 인간의 현실과 전설을 통해 구현한다. 전설에서 야만따까판뜨라 본존이 소머리를 하게 된 연유는 50년의 수행을 통해 성취를 목전에 둔 어떤 수행자가 두 도둑에 의해 훔친 소의 머리를 잘라 수행자 앞에 놓고, 뒤이어 수행자의 머리마저 잘랐을 때 수행자는 소머리를 자신의 몸에 붙여 야마로 변신하고 두 도둑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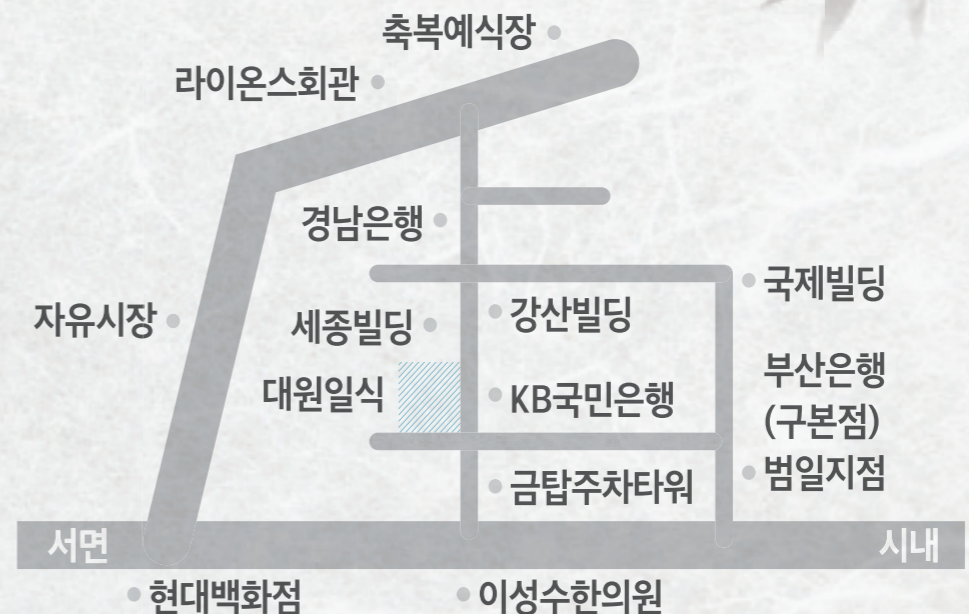
해해 그 해골에 담긴 피를 마셨다. 살해와 폭력의 화신이 된 야마가 티베트의 모든 백성들을 살해하려 뜻을 품었을 때 티베트인들은 문수보살에게 구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때 문수보살은 야만따까로 변하여 야마를 물리치고, 야마로 하여금 불법을 지키는 수호존이 되게 하였다.

야만따까판뜨라는 불교의 지혜를 현실의 수행으로 끌어들이는 점진적 과정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야만따까판뜨라는 『문수사리근본의례』에 깊이 연유한다. 여기에는 문수보살에 대해, "그는 와즈라바이라와이다. 끔찍한 금강승의 수호존이며 공포의 지배자이고, 6팔과 6눈, 6팔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죽음의 파괴자이며 모든 장애를 정복한 왕이다"라고 하였다. 야만따까판뜨라는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에 의해 인간현실의 번뇌와 부조화를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는 특별한 본존관을 반영하고 있다.

법성사 교도

대원 초밥요리 전문점

대표 지영심





종합 동해중 소식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8월29일,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 정년 퇴임



탁상달 교장 퇴임사를 마치고 학생들의 박수 속에 퇴장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해중학교 학생 여러분, 떠난다니 마음이 허전하고,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동해 교정을 뒤돌아 볼 것 같습니다. 떠나면 제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으 로 퇴임사를 하는 탁상달 교장 선생은 차

마 말을 잊지 못했다. 지난 8월29일 동해 중학교에서는 탁상달 교장 선생의 정년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퇴임식은 탁 교장의 평소 뜻에 따라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오후 1시 30분부터 교내 강당에서는 특별한 식순 없이 학생 들에게 탁 교장이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

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9년 오늘이 가르치고 전달하고 제공 하는 지도의 공덕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셨던 따뜻한 배려와 서원해주신 인정에 감사드리며 동해중학교에서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며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도서관에서 전 교사 및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대신해서 다과와 함께 송별연을 열었다. 송별연에서는 그동안 탁 교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이사장 인선 정사의 감사패와 동해중학교 졸업생인 이진복 국회의원의 감사장 전달이 이어졌다. 또 전교직원을 대표해서 탁 교장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이에서 선생의 ‘보내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섬세한 마음을 애써 뒤로하고 교장 선생님의 새 출발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학교 밖에서도 넘치

는 열정과 능력으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이들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과 몸소 보여주신 학교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며 작별의 아쉬움을 대신했다.

이에 탁 교장은 “교육이란 정신적, 물질적인 투자라는 거름을 먹고 성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우리 동해중학교가 부산에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항상 노력하는 우리 동해교육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고 답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다.

탁상달 교장 선생은 1990년 동해중학교 국어 교사로 부임하여, 2007년도 교무기획부장, 2011년 교감을 거쳐, 2014년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29년 간 동해중학교에 몸담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동해중학교를 명실상부한 지역 명문 중학교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동해중=박재원 기자>

부산불교 10만 불자, 불교문화 대축제 연다.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불교정신을 사회에 보여주는 취지로 기획됐다. 백고좌법회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가 봉행되며,

부산의 불심을 결집하고 시민들의 평안과 부산 발전을 염원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산 불교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 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부산 시민의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대축제’ 개최를 밝혔다. 이번 축제는 10만 부산 불교도 결집으로 불교중흥의 원동력이 되고, 불자들이 큰 용기와 자부심을 이룰 수 있도록 화합의 한마당을 통해 부산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의 가치를 증명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준비 됐다. 또, 불·범·승 삼보를 예경하며, 나눔으로 자비사상을 실천해

승가와 재가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불교선언문을 채택한다. 또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0포 지원식도 마련된다. 이밖에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을 비롯해 아이돌 가수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 불꽃쇼 등 문화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불교의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한편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는 8월 23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산여성불자회, 불교TV업불공양회, 부산과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경찰청불자회 등 20여 부산불교포교신도단체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대축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신임 이지희 원장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 중인 강남구 세곡동 ‘초록어린이집’ 새 원장에 8월 1일 부로 이지희 씨가 선임되었다. 지난 8월 6일 이 원장은 통리원을 방문하여, 통리원장 인선 정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자연친화보육원’에 잠원햇살어린이집 선정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인선 정사)이 운영 중인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원장:김선희)이 ‘서울시 자연친화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육 실현을 위해 자치구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4개구를 선정 하였고, 그 4개구에서 서초구가 선정되었다. 이에 서초구는 서울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받아 국공립, 가정, 민간, 직장 어린이집 중 5개원을 선정하였으며, 서초형 자연친화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잠원햇살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앞으로 서울시에

서 모니터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며, 서초구의 지원도 받아 서울시 어린이집의 자연친화 보육 자리 매김에 한발 앞서 나가게 되었다. 이지희 원장은 “서울에서 최초로 자연친화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이 시기에 선정이 되어 더욱 기쁘다.”며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잠원햇살어린이집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우수보육프로그램에도 선정되어 2019년 4월부터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다.



교각의 그림

해가 중천에 떠 있던 어느 휴일 한 낮, 늦은 아침을 먹고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다. 집 앞에 흐르는 흥제천의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면 25분 만에 한강에 다다를 수 있다. ‘건강을 위하여’라는 그림 듯한 명분이 아닌 그저 시냇물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삶의 여유와 한가함을 즐겨볼 요량이었다. 사실 많은 산책객들과 자전거 애호가들, 애완견으로 복작거리는 낮보다 텃새가 되어버린 청둥오리 가족이 수면 위 바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한 밤을 더 선호한다. 한강에 이르면 성산대교의 불빛과 강변 버드나무 위로 스러지는 하얀달과 바람이 쉬어가는 빈 벤치. 그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흥제천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을 나 있고, 양 방향으로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흥제천 위로는 내부순환도로가, 그 교각에는 클립트의 ‘키스’,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고흐의 ‘붓꽃’ 등 서양회화와 이중섭의 ‘활소’, 김기창의 ‘아악의 리듬’, 박수근의 ‘빨래터’, 장욱진의 ‘자전거를 타는 소년’,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등 한국 근·현대 명화와 풍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비록 모조품이지만 삭막한 콘크리트 교각에 설치된 미술품들을 보고 싶노라면 근사한 미술관이라도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입추와 말복이 지나면서 바람에 시원함이 배어 있다. 자전거 속도에 반응한 바람이 얼굴에 잠시, 또 잠시 머물다 흩날 사라진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풍경을 완상하면서 달린다.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마다 휴일을 나선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나이가 든 사람들이다. 역시 나이가 들면 건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치매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다. 운동기구 하나씩 차지해 땀을 흘리는 노인들 역시 그것을 두려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교각에 걸려 있는 그림 중에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를 좋아한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파란 점들이 물결처럼 일렁여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점들과 그 사이로 이어진 진파랑선들은 상형문자 같기도 하고, 인연의 끈 같기도 하다. 김환기 작품의 절정으로 불리는 이 그림의 제목은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왔다.

두려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교각에 걸려 있는 그림 중에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를 좋아한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파란 점들이 물결처럼 일렁여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점들과 그 사이로 이어진 진파랑선들은 상형문자 같기도 하고, 인연의 끈 같기도 하다. 김환기 작품의 절정으로 불리는 이 그림의 제목은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왔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 중에 하나, 그 별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서로 마주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인연이다. 아침이 다가올수록 ‘별’이 사라지고, 화자인 ‘나’도 죽는 것과 다시 만나는 것은 불교의 인연설과 윤회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김광섭 시인과 친구인 김환기 화백은 1970년 뉴욕에서 이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부르면서 캔버스에 점 하나 하나를 찍었다 한다. 그리고 보니 캔버스는 우주, 점들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다. 그 별 중에 나는 어떤 별에 유독 눈길이 가는가, 저 별 중에 어떤 별이 나를 더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인연으로 나는 보지 그림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교각의 그림에도, 물속에 떠 일렁이던 곳마다 휴일을 나선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나이가 든 사람들이다. 역시 나이가 들면 건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치매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다. 운동기구 하나씩 차지해 땀을 흘리는 노인들 역시 그것을

<시인 김정수>

총지중보 / 위드드라마  
구독문의 | 총지중보실  
02-552-1080~3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전세형	8/5	30,000	법천사	반야심	7/31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8/12	50,000
건화사	법상	8/19	10,000	법천사	법경	8/19	10,000	정각사	안한수	8/4	10,000
관성사	황성녀	7/25	10,000	법행사	덕현	8/19	10,000	정심사	도현	8/12	10,000
	인선	8/19	20,000		유승태	8/5	10,000		변순개	8/14	10,000
기로스승	해정	7/25	10,000	벽룡사	박미경	8/19	10,000	지인사	화영	8/19	20,000
	상지화	8/19	10,000		승원	8/19	10,000	총지사	승효제	8/12	10,000
	수중원	8/19	10,000	사원명무기명	모원화	8/19	1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7/25
	밀공정	8/19	10,000		남영애	8/1	30,000	총지사	홍수민	8/16	10,000
	총지화	8/19	10,000	박필남	8/14	10,000	박정희		8/19	10,000	
	법수원	8/19	10,000	김갑선	8/19	10,000	총지사	이수영	8/19	10,000	
	선도원	8/19	10,000	성화사	이학열	8/19		20,000	신용도	8/19	10,000
	법지원	8/19	10,000	수인사	정순득	7/26	10,000	최영아	8/19	10,000	
	일성혜	8/19	10,000		이필선	7/29	10,000	총지중보	박재원	7/25	30,000
	사홍화	8/19	10,000	실보사	박성호	7/24	10,000	통리원	김평석	8/14	10,000
안주화	8/19	10,000	이순옥		7/24	10,000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8/12	50,000	
진일심	8/19	10,000	실지사	정경자	7/22	10,000	총지사	무명씨	8/1	10,000	
시각화	8/19	10,000		유승우	7/22	10,000		강승훈	8/12	5,000	
단향사	이수형	8/2	10,000	동해사	조성우	8/2	10,000	강승민	8/12	5,000	
밀인사	김진화	8/13	10,000		관득	8/12	10,000	최영미	8/12	50,000	
	법선	8/19	10,000	덕광	8/19	10,000	우인	8/12	10,000		
백월사	정정희	7/31	5,000	운천사	보현	8/19	10,000	보명심	8/12	10,000	
	정우석	8/5	10,000		이성미	8/14	50,000	강정이	8/13	10,000	
백월사	록경	8/12	10,000	일원어린이집	김지영	7/21	10,000	무명씨	8/19	10,000	
	법수연	8/12	10,000		하재희	7/25	50,000	홍국사	지정	8/12	20,000
백월사	김강미자	7/30	10,000	구미자	7/31	10,000					



# 밤 기온 내려 이슬이 맺힌다. '백로'

정각사 남혜 정사



검게 된다고 믿었다.

제주도 속담에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고 전한다. 또한 백로 전에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충남에서는 늦게 벼를 심었다면 백로 이전에 이삭이 패어야 그 벼를 먹을 수 있고, 백로가 지나도록 이삭이 패지 않으면 그 나락은 먹을 수 없다고 믿는다. 경남에서는 백로 전에 패는 벼는 잘 익고 그 후에 패는 것은 쪽정이가 된다고 알고 있으며, 백로에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기도 한다.

백로는 보통 음력 8월 초순이지만 7월 말에 들기도 한다. 7월에 든 백로는 계절이 빨라 참외나 오이가 잘되며, 8월 백로에 비가 적당히 오면 대풍이라고 여긴다. 또한 백로는 포도가 맛있게 익는 시기인 만큼 백로부터 추석까지는 포도의 당도가 높아 가장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포도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백로의 절기인 지금 무더위는 물러가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우리에게 많은 능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시기로 추수의 시작, 풍성한 절기, 독서의 계절, 말들이 살찌는 계절 등의 수식어들이 붙는다. 우리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로 삼아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절을 좀 더 보람차고 가치 있게 보내면 좋겠다.

맑고 깨끗한 흰 이슬이 맺힌 풍경. 완연한 가을 기운이 온 대지를 덮고 있다.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언제나 그렇듯 가을이 찾아온다. 처서와 추분 사이에 있는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 기온이 내려가 이슬이 맺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는 백로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초후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후에는 못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이맘때 내리는 이슬에 약효가 있다고 믿어서 백로 무렵이면 '눈이 밝아지는 주머니'라는 뜻의 '안명낭' 안에 측백나무 이슬을 따서 담았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이 이슬로 눈을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여겼다.

백로는 도시인들에게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을 주는 절기이지만 농촌에서는 가을농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백로 전에는 벼 이삭이 패야 해서, 만약 벼이삭이 패지 못하면 그 나락은 먹을 수 없다고 믿어, '벼이삭이 백로 오전에 패면 먹고 오후에 패면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걷힌 후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하지만 간혹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해일로 곡식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 백로 다음에 오는 중추는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다. 전남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 빛눈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여물어야 한다. 벼는 늦어도 백로 전에 패어야 하는데 서리가 내리면 찬바람이 불어 벼의 수확량이 줄어든다. 백로가 지나서 여름 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 농가에서는 백로 전후에 부는 바람을 관찰해 풍흉을 점치기도 했는데, 백로에 바람이 많이 불면 벼농사에 해가 많고 나락이 여물더라도 색이



## 몸

오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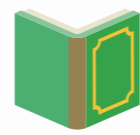
살다보면 살아진다고  
그렇게 살다 우리는 사라지는 거라고  
때깔 고운 몸으로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몸은 나부끼는 거란다  
몸은 퍼덕이는 거란다  
몸은 자기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관자놀이엔 잔뜩 힘주고  
항문을 바짝 조이고  
하늘로 뛰어 오르려는 몸

바투 붙잡아줘야 하는 거란다  
그렇게 나부끼는 몸으로 살다보면  
사라질 날도 있을 거라고  
아흔 고개를 넘어서서  
때깔 고운 몸을 날려버린  
전생애 불경을 나르던 소였던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살다보면 살아지고  
사라진다고



생사일여(生死一如), 제주에 있는 묘지 석상화, 오대혁 작

시인(2005년 신문에 문학지 등단) 문화평론가. 동국대 국문학박사



전운호 시인의  
붓다와 문학(1)



시인 전운호

# '조신의 꿈'

낮잠

전운호

조신은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젊은 승려이다. 세속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기도하러 온 처녀를 사랑하여 그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소원대로 되지만 그들을 뒤흔친 건 세상

잘 생기고 예쁘고 명성까지 얻은 연애인들이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세상에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 부처님 설법의 매력, 비유가 있는 이야기 성경이 소설적이면, 부처님 말씀은 시적

의 가난과 고통이어서 울부짖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결국 삶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다시 부처에 귀의하여 정도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매력 있는 주제이다. 김만중의 구운몽에도 나오고 이광수의 꿈에도 나온다.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역시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처님 설법의 매력은 비유가 있는 이야기에서 나온다. 흔히 서양 문학의 원전이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소설적이거나 부처님의 말씀은 시적이다.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불경부터 읽어야 한다. 그곳에 인간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도대체 인간은 사랑의 허망함을 언제나 깨달을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지나간 청춘의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들끓었다. 물론 다른 절반은 채우지 못한 욕심이었을 것이다. 조신은 우리의 다른 모습이고 자이다. 결국 절 한 채, 탑 한 기 세우지 못하고 스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은 꿈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내 삶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깨고 나면 깨달음이 남는 결말이 있는 또 다른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뒷 얘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 조신을 떠올리며 조신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두 사람이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인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필요했는가.

세상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자신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창으로 꽃가지 어른거리
- 저녁인줄 알았네
- 한생 모두 잔 듯
- 소슬바람 불어도
- 슬픈 마음 들지 않으니
- 다시 일어나 밤을 짓네.

실지사 교도

# 맛찬들 3.5

## 노원점

# 왕소금구이

예약전화 **02-938-7008**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68-9

영업시간 11:00 - 01:00

# “독서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의 믿음으로 총지종과 인연

“어느 날 등 떠밀려 나간 글쓰기 대회에서 장원을 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읽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쓰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무엇인가 쓰고 있습니다.”

‘생각의 독서’ 저자 김정진 씨는 정각사 단원회 강경중(전 동해중 교장)회장의 자부(머느리)다. 20년 가까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서비스를 혁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찾은 재능과 어릴 적부터 즐거웠던 독서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책을 펴냈다.

“책을 재미있게 읽고 싶고, 책임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신만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읽기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 하나의 주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 읽는 방법

등에 관해 이야기하며, 읽고, 찾아보고, 메모하고, 자신의 느낌을 끄적거리면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눈으로만 읽어 흘려보내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저자의 특별한 독서법과, 그렇게 읽은 열두 권의 책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촘촘하게 담겨 있다.

“아버님의 소개로 불교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교도분들이 부족한 제 책을 읽고, 어떻게 지적 호기심에 스스로 답하고 기록하며 생각할 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자는 SK플래티지 지속경영그룹에서 일하면서, 디지털 타임스, 한국경제 등에 글을 써오고 있다.



‘생각의 독서’ 저자 김정진 씨



읽을수록 빠져드는  
**생각의 독서**  
지은이 | 김정진  
가격 | 15,800원  
쪽 수 | 320쪽



## Q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는지요? 꼭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A 종조법설집에 조상제사는 무슨 뜻으로 받드는가? 에 대한 답으로 ‘살아 계시는 부모님께 효순하는 근본을 굳게 세우려고 행사한다.’고 법설하고 계시지요. 어느 집안이던 조상 제사와 설,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내고 있을 겁니다. 이웃 종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받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드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일종의 전통문화이며 조상을 섬김으로써 종조님께서 법설하신 부모 은혜를 갚는 효순을 실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조선 예법서인 예기와 국책으로 정한 경국대전에서 근거가 되었던 중국 주자가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4대 봉사, 3대 봉사, 2대 봉사(奉祀)라 하는데 이는 ‘제사를 받든다.’라는 뜻으로 4대에 걸친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 됩니다. 4대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

모가 되지요. 이분들은 다 나의 부모가 됩니다. 제사는 고려시대 중국의 주자학이 유입되면서 조상제사 의식도 함께 유입되었으며 고려말 쇠망해가는 시대 새로운 사상운동을 통해 나라를 혁신하고자 한 신유학자들에 의해 4대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점점 확대해갔고 세종대왕 때에는 제사의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이후부터 김장생이 4대 봉사를 원칙으로 정하자 모든 양반가들이 이것을 따르게 되었고 점차 서민들에게도 퍼져가게 됩니다. 조선말에는 양반 신분을 사서 나도 양반입네 하며 너도나도 4대 봉사를 하게 되었지요. 현실적으로도 4대 봉사를 하면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번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전통을 살려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2대 봉사까지 만을 인정하고 그 외는 허

례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는 고대 사람들이 신의 가호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천지신명께 정성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조상의 넋을 기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후손들이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리는 전통문화로 사머니즘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노나라의 권세가인 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공자에게 묻자 ‘살아 가셔도 예를 다해 장사를 지내며, 제사 지낼 때도 예를 다해야 한다.’고 하며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였습니다.

집안마다 조금씩 다른 예법으로 조상 제사를 받들고 있지만 제사를 통해 집안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한 모습을 조상님께 보여 주는 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법일 정사>



##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 진주 화음사, 서원불공 도량으로 만점 8월 한달 새 국가시험 3명 합격자 배출



진주 화음사(주교 : 우인 정사)에서 지난 8월 한 달 사이 국가시험 각 분야에 3명의 합격자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강순란 회장 자녀 이선민 양입니다.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1차 만점과 2차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그간 지극정성으로 불공해주신 부모의 은혜에 보은하였습니다. 또 화음사 주교 우인 정사님과 보명심 전수님의 자녀 최윤희 양은 군무원 경력자과정에, 고영달 보살의 자녀 박정현 양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특히 고영달 보살님은 화음사에 입적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보살님들의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불공에 열심히 매진하고, 수요일마다 있는 법당청소에도 꾸준히 참석하는 등 정성어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화음사에서 ‘하연 된다.’는 신념으로 더욱 정진하고 있으며, 취업불공은 물론 결혼불공 등 서원불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음사=강점이 통신원>

### 벽룡사 산악회 정기모임을 다녀와서



8월 17일,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도착한 만리포 해수욕장은 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선발대 각자님들이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천막을 설치하고, 상차림을 하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신 그 감동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 고문님이 직접 구워주셔서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지만 특히 손강의 산악회 회장님, 김태현총무님,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직접 챙겨주셔서 몸돌 바를 몰랐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먹은 컵라면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사님, 전수님께서도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시고, 특히 정사님의 유머러스한 말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서 더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이름난 해수욕장에서 파도를 맞으니,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해수욕장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어제 하루는 행복한 날이었어요. 함께 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벽룡사=오기순 통신원>

### 수인사, 민화, 사찰요리 강좌 개설 전문 강사 진, 주 1회 누구나 참여

포항 수인사(주교 : 법일 정사)는 가을을 맞이해 새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특히 민화 강좌는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초급부터 시작한다. 오는 9월 23일(월) 오후 2시, 2층 공양처에서 시작되는 민화강좌 강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세계기술축전 우수작가상을 수상한 이명희 작가로 현재 경주문화원에서 강사로 활약 중이다. 주 1회 월3판원(재료비 제외)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 사찰요리 무료 강좌가 오는 9월 26일(금)일부터 시작된다. 선린대 호텔한식 박금화 교수가 강좌를 맡았으며, 매주 1회 진행된다.

<문의=054-247-7613>

### 어울림소식

#### 밀인사

임옥남 보살님 손녀 김수연  
김서연 보살님 자녀 육보경

공무원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총지사 교도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가정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만다라요양원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정성과 사랑으로 모십니다.

- 입소정원 | 6명(선착순 입소)
- 본인부담금 | 45만원 ~ 50만원
- 입소대상 | 장기요양 1등급 ~ 4등급

#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절찬리 분양중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군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  
(초량지구대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1분거리, 대형마트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LG휘센스마트천장형에어컨  
친환경동화자연마루시공  
실크벽지  
불박이장  
LG공기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파트 | 23세대 (2Type)  
오피스텔 | 34호 (3Type)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문의 051-468-7164